

우리 나라 외식시장에 부는 '동북풍'

동북 음식, 중국인의 입맛을 사로잡다

뜨거운 숯불이 활활 타오르고 불판에서는 고기가 맛있게 익어가고 있다... 료녕성 심양시에 있는 서탑할매 숯불구이집에선 종업원들이 분주히 오가고 가게 입구는 대기자들이 장사진을 이루고 있다.

중국 동북지역의 관광 열기가 초여름까지 이어지면서 점점 더 많은 관광객들이 동북 도시를 찾고 있다. 이 중에는 심양시 서탑 먹자골목의 유명세를 듣고 찾아오는 관광객들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심양시에 본점을 둔 서탑할매숯불구이집은 이색적인 맛으로 최근 수년간 북경, 상해 등 지역의 '인타넷 핫플레이스'로 떠올랐다. "우리 브랜드는 최근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해 동안 268개 매장을 새로 오픈했고 향학과 한국에도 매장을 열었습니다. 중국 전역의 매장수가 이미 370개를 돌파했습니다." 서탑할매 브랜드 창업자 로길홍의 말이다.

로길홍은 표준화된 시스템을 구현해낸 것이 브랜드의 빠른 발전에 큰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규모화된 체인점 경영을 실현하기 위해 매장 오픈 프로세스, 인테리어 표준, 업무 프로세스 및 결제 시스템 등의 표준화를 이뤘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동북 바비큐로 대표되는 동북지역의 다양한 외식 브랜드가 중국 전역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물론 동북 외식 브랜드의 타지역 진출 과정은 그리 순탄치만은 않았다.

1991년 길림성 연변에서 문을 연 풍무포치구이는 중국 전역에 50개 이상의 직영 매장을 두고 있다. 주조해 풍무포치구이 사장은 "장춘, 북경

에서 성공을 거둔 후 남쪽으로 진출해 상해에 2,800평방미터 규모의 매장을 차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부지 선정 미흡과 맛의 현지화가 제때 이뤄지지 않아 매장 오픈 1년 내내 적자였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주조해 사장은 "도시별로 고객의 수요를 파악하고 제품 구조와 서비스 방식을 조정하는 것이 우리의 중요한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연변 음식은 매운 편이라 북경, 상해 등 시장에 맞추려면 매운맛을 적당히 줄여야 한다."며 "타지역 시장을 개척할 때도 20% 정도는 현지인의 입맛과 습관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한 식당 매니저는 "동북 진흥이 가속화되면서 동북지역이 전국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면서 "지역 특색이 강한 동북 료리는

선진화된 관리 및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더 많은 '유명' 브랜드를 배출해 낼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적인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었던 데는 끊임없는 탐구와 혁신 능력, 꾸준한 노력이 뒷받침됐습니다. 또한 지역 특색이 강한 음식을 더 많은 사람이 수용할 수 있는 음식으로 업그레이드한 것이 성공의 비결입니다." 주조해 사장은 동북 료리가 성공적인 '진출'을 거뒀지만 앞으로도 품질과 가성비를 한층 더 높이고 현지 특색과 융합하면서 지속적으로 배우고 혁신해야 더욱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신화사



▲ 로씨야 관광객이 길림성 훈춘시 한 달거리 야시장에서 음식을 사고 있다. / 신화사



▲ 지난 2월 14일, 료녕성 심양시 로변교자관 문앞에 고객들이 길게 줄을 서있다. / 신화사

'농촌감성'으로 지역 활력 불어넣는 귀농 청년들



일선 안휘성 안경시 두모향의 마을 카페 야외 공간에서 손님들이 사진을 찍고 있다. / 신화사

안휘성에 사는 왕씨에게는 마을 카페에 들러 커피 한잔하며 손님을 사진 찍어주는 새로운 취미가 생겼다.

안경시 두모(痘姆)향의 이 카페는 유채꽃밭 옆에 자리하고 인형과 LED 조명으로 장식돼 사진 명소로 떠올랐다. 이에 여가를 즐기려는 관광객뿐만 아니라 마을 주민들도 이곳을 즐겨 찾고 있다.

이곳 카페는 30대 초반의 호서의 즉흥적인 아이디어에서 비롯됐다.

카페 운영자 호서는 "고향으로 돌아와 카페를 오픈한 이유는 사람들의 일상에 고요한 탈출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라며 "커피와 자연의 조합이 농촌생활을 더욱 풍요롭게 한다."고 말했다.

3월에 오픈한 이 카페는 이미 일일 최고 매출이 만원을 넘어선 상태다.

안휘성 지방정부의 다양한 인재 유치 정책을 힘입어 호서와 같이 취업 기회를 찾아 귀농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 같은 청년 귀농은 농촌에 변화와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안휘성인력자원사회보장청은 안휘성은 생대 우세를 활용하고 고용 환경을 개선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젊은 인재들을 끌어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30대 청년 주사일은 잠산시 반보촌

에서 리조트 매니저로 일하고 있다. 주사일은 자신의 팀과 함께 실내 놀이공원, 야외 바비큐장을 비롯해 놀이·숙박·교육·농업체험 등이 결합된 복합 농촌 문화관광 상품을 개발했다.

그는 소비사슬이 확장되면서 40여개 농가의 소득이 증가했고 두명의 청년 바리스타가 이곳에서 사업을 시작했다고 소개하면서 "올해 5.1 연휴 기간에는 매일 연인원 만여명 관광객이 이곳을 찾았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동영상과 라이브 스트리밍을 활용해 수입을 창출하는 청년 귀농인도 있다.

밭일을 마친 어르신 모습, 지역 별미, 설 새 없이 돌아가는 고구마 말리는 기계... 30대 초반의 오픈고프의 동료들은 동영상과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 농촌의 정취와 지역 특산물을 소개하고 있다.

오픈고는 "우리는 단순히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고향의 라이프스타일을 알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3개 산간마을에서 20여종의 지역 특산품을 판매했으며 라이브 방송 1회당 1만원에 육박하는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밝혔다. / 신화사

2024 연길커피문화축제로 '현역 커피왕' 매력 전시



2024년 연길시 커피문화축제 개막식

5월 25일, 연길시정부에서 주관하고 연길시상무국에서 주최한 2024년 연길커피문화축제가 연길백리성소풍 중심에서 막을 올렸다.

연길시상무국 국장 신성해에 따르면 2024년 중국연길커피문화축제는 커피시합 및 커피장터, 가게방문, 사진촬영, 커피문화 생방송과 커피소비보조 등 부분으로 구성되었는데 커피 보급과 전파를 위한 커피문화교류를 통해 연길 커피 브랜드 영향력, 문화

적 우세를 보강하여 문화관광산업의 고품질 발전을 도모하는 '청년연길' 도시 브랜드 구축에 조력하는 데 취지를 두었다.

이번 축제는 또 광범한 커피애호가들에게 소통의 장을 마련해주는 한편 바리스타들에게 기술 수준을 제고하는 기회를 제공했다. 현장에는 커피장터를 설치, 20여개 연길 현지 커피 기업과 공급상 및 민속 제품, 제빵 상인들이 행사에 참여하여 무료 시음, 저가 판매 등 방식으로 더 많은 관광객과 시민들이 연길 커피와 맛있는 음식을 맛볼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이번 축제중의 '가게방문', '사진촬영', '커피문화 생방송'은 연길 커피 선전활동을 집중적으로 선전하는 중요한 일환으로 되었다.

이 밖에 문화축제 기간 진행된 '커

피소비 보조' 활동은 콰이썬우 플랫폼을 통해 상인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해 상인과 소비자 쌍방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다.

알아본 데 따르면 연길시에는 커피

숍이 총 800여개 있는데 인구 1만명당 커피숍 보유량으로 볼 때 '커피의 도시' 상해의 4배에 가까운 수치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김영화기자



장백산풍경구 2차 방문객 우대정책 시행



얼마전 장백산풍경구는 공고를 발부하여 장백산 북쪽풍경구 2차 방문객에게 5월 21일부터 6월 14일까지 입장료 무료 혜택을 제공한다고 했다.

장백산풍경구 2차 방문객 우대정책 시행에 관한 공고

장백산 서쪽풍경구가 도로 보수공사로 일시 폐쇄된 데 대한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 서쪽풍경구 폐쇄 기간(2024년 5월 21일-6월 15일) 장백산 북쪽풍경구 2차 방문객을 대상으로 5월 21일부터 6월 14일

까지 입장료 무료 혜택을 제공한다.

2차 방문 혜택 조건

- 본인이 당일 북쪽풍경구를 방문해 입장권이 이미 사용된 상태라면 다음날 북쪽풍경구의 입장권을 구매할 때 자동으로 2차 방문 무료 입장권 우대정책을 누릴 수 있으며 유효기간은 1일이다.
- 우대정책은 온라인 티켓팅 및 성공적인 예약후 발급되고 예약 당일엔 한하여 유효하며 당일 티켓을 구매하지 않으면 혜택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고 날짜 변경은 불가하다.

/ 인민넷

22곳 국가급 관광휴양지로 확정 예정, 길림성 +1

〈국가급 관광휴양지 관리조치〉 및 〈관광휴양지 등급 분류〉 국가표준에 따라 성급 문화관광행정부문의 추천을 받아 문화관광부는 절차에 따라 종합적인 인증을 조직했다. 22곳의 관광휴양지가 국가급 관광휴양지 표준의 요구사항을 충족함으로써 2024년 새로운 국가급 관광휴양지로 확정될 예정이다. 현재 명단은 공시중에 있다.

그중 길림성에서는 장백산화미명승지관광휴양지(长白山华美胜地旅游度假区)가 22곳 명단에 올랐다.

/ 인민넷

| |
|---------------------------|
| 北京市密云区北水峪国际休闲度假旅游区 |
| 山西省晋城市太行山国家森林康养基地 |
| 内蒙古自治区兴安盟扎赉特旗国家森林康养基地 |
| 辽宁省大连市旅顺口区国家森林康养基地 |
| 吉林省安图县国家森林康养基地 |
| 江苏省苏州市吴江区太湖国家森林康养基地 |
| 安徽省芜湖市南陵县国家森林康养基地 |
| 浙江省湖州市安吉县国家森林康养基地 |
| 山东省临沂市沂水县国家森林康养基地 |
| 河南省郑州市巩义国家森林康养基地 |
| 湖北省武汉市黄陂区木兰国家森林康养基地 |
| 湖南省长沙市浏阳市国家森林康养基地 |
| 广东省珠海市斗门区国家森林康养基地 |
| 广西壮族自治区桂林市全州县国家森林康养基地 |
| 海南省三亚市海棠国家森林康养基地 |
| 重庆市石柱县武陵山国家森林康养基地 |
| 四川省凉山彝族自治州西昌市国家森林康养基地 |
| 云南省昆明市石林县国家森林康养基地 |
| 甘肃省临夏回族自治州临夏市国家森林康养基地 |
| 宁夏回族自治区中卫市沙坡头(沙漠)国家森林康养基地 |
| 新疆维吾尔自治区阿克苏地区库车市国家森林康养基地 |

상해디즈니, 입장권 가격구조 조정



5월 24일, 상해디즈니리조트는 2024년 11월 24일부터 상해디즈니랜드 입장권은 현재의 4단계 입장권 가격구조에서 2개 단계의 입장권 가격을 추가하여 6단계 입장권 가격구조로 조정한다고 대외에 선포했다.

새로운 6단계 입장권 가격구조에서 기초 입장권 가격과 최고 입장권 가격은 변하지 않는바 여전히 475원, 799

원이다. 중급급 입장권 가격은 현유의 599원과 719원 외에 새롭게 2개 등급을 추가한다. 공고에 따르면 새로 추가되는 2개 등급의 입장권 가격은 각각 539원과 659원이다. 즉 11월 24일부터 발표되는 새로운 6단계 입장권 가격구조의 입장권 가격은 순서대로 일인당 475원, 539원, 599원, 659원, 719원, 799원이다. / 인민넷